

- ⑨ 이 推定은 堅穴에서 發見된 것이라고 傳하는 海獸葡萄鏡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.
 ⑩ 註 ④의 (12)參照
 ⑪ 註 ④의 (13)參照

傳清州出土

石造半跏思惟像

黃 壽 永

국립박물관이 소장하는 높이 약 1m의 金銅半跏思惟菩薩像 二軀는 모두 우리의 國寶이며 世界の 至寶라 하겠다.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傳來를 매우 多幸으로 여겨왔으며 三國時代彫像에 대한 研究도 이 같은 傑作의 전래에서 비롯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필자가 우리 古代 彫像史에 유의하면서 그 初期에서 이 같은 특이한 樣式像을 주목하여 온 것은 이 같은 兩像이 있어서의 일이다. 이들 兩像의 造形과 그 오랜 保存은 物心兩面의 重大한 緣由가 있어서의 일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. 三國시대의 佛像樣式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이 같은 양식상의 높 이 발달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기에 오늘 이와 같은 優品을 남길 수 있었다.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古代美術의 전통에서 뿐 아니라 그 信仰의 내지 思想的 背景에서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. 이 같은 큰 課題가 우리의 美術史를 엮는 그 첫머리에서 주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그 解明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三國시대의 彫刻史에서 찬란 하게 빛나던 우리의 榮光을 이들이 오늘에 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.

해방후 半跏思惟形 菩薩像에 대한 우리의 研究는 기왕의 資料와 知見을 훨씬 넘어서 增加되었다. 六, 七 兩世紀에 걸쳐서 유행한 이 樣式에

대한 기왕의 注目은 오직 三國중 古新羅에만 局限되어 왔었다. 그것이 高句麗와 百濟의 他兩國으로 擴大되어 가 각기 金石像의 새로운 資料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그들의 比較考察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半跏思惟形像의 綜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 平壤市 平川里 傳弘福寺址 出土의 金銅像①을 비롯하여 忠南 瑞山 伽倻峽의 磨崖像②이나 同 燕岐 碑岩寺 등의 碑像③ 등은 모두가 近年의 麗濟의 新例라 하겠다. 또 古新羅에 있어서의 慶北 奉化 北枝里에서 발견된 巨大石像④은 그 復元值에서 東洋第一의 半跏思惟形石像이라 하겠으며 또 기왕에 注目된 바 있었던 慶北 月城郡 斷石山의 神仙寺石窟의 磨崖像 또한 새로운 調査를 받았던 것이다. 이 같은 遺例 以外에도 最近年에 이르러 金銅小像⑤의 新例가 增加되어 온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으며 그들을 통하여 이 같은 樣式像에 대한 研究의 進展을 기하려 하였다.

이 곳에 새로 소개하려는 것은 작은 石像의 一例인데 애석하게도 腰部 이상에 없어서 現高 10cm에 불과하다. 그러나 이 같은 破像이나 마 필자에게는 數年來 드물게 보는 新例로서 그 出土地가 忠北 淸州市에서 약 十里相距라는 사실이 口傳되고 있으며 現存部分의 양식도 磨損이 매우 심하기는 하나 臺座의 양식뿐 아니라 身部の 殘存部만으로서도 그 半跏思惟形式을 짐작할에 넉넉하다.

먼저 前面에 있어서는 腰部에 둘러진 袈衣의 結紐가 잘 남아 있는 데 雙條를 이루는 腰帶가 露出된 곳은 오직 이 곳 前面뿐이다. 그리고 側面과 後面은 袈衣의 上端이 半圓形으로 反轉되어 있는데 이 같은 양식은 新羅 松花山石像(慶博)이나 國立博物館 金銅半跏像(舊德壽宮美術館像) 등을 들 수가 있다. 다음에 右足を 半跏하여서 左足 위에 엮었는데 右足指가 ㄱ字形으로 屈折된 사실을 보일 뿐 그 上面은 모두 脫落되었다. 그리고 이 足指部位에 이웃하여서 左手의 五指만이 남아 있다. 그리고 右手를 屈折하여서 思惟形을 보이던 痕跡은 오직 右膝 위에 작은 破痕을 남기고 있다. 그리고 腰帶上部의 殘存部에서 미루어 上部裸身의 이 같은 當代樣式像의 通例를 따르고 있다고 추정되었다. 이상이 身部에서의 前

面觀인 바 같은 現狀은 또한 半跏樣式的 破像으로서 現存하는 遺品例
컨대 上擧한 奉化像이나 百濟滑石像 또는 松花山原在石像⑦ 등이 모두 거
의 同一하다고 하겠다. 破損될 때의 折斷部位가 細腰部임을 理解할 수
가 있다.

그리고 이같은 手足 以下の 臺座에 있어서는 衣褶이 主紋을 이루었으
며 垂下된 右足指는 半圓으로 突出되었다고 추정되는 足座와 더불어 全
缺되었다. 다만 半跏된 右膝 밑에는 一段의 三角突起가 表現되었으되 그
밑으로는 衣紋이 垂下되었으되 그 下端에서는 褶襞을 나타내고 있다.
그런데 이 衣紋이 最下の 推定 蓮花紋圓座까지 垂下되지는 않고 그 上
部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. 이것 또한 위에서 들은 新羅의 奉
化·慶州 松花山 兩石像 또는 百濟의 瑞山磨崖像과 비교될 수 있을 것
이다.

다음에 이 石像의 側面은 左右가 거의 同一하여서 모두 衣紋을 새겼
으며 각기 紙帶가 垂下되었다. 이 紙帶는 각기 腰部에서 下臺까지 이르
고 있으나 그 樣式은 小異하다. 右側의 것은 磨滅이 되었으나 그 下端
에 이르러 三條를 이루었으며 左側의 것은 圓座上緣에서 花紋으로 結紐
되면서 그 以下는 雙條를 이루고 垂下되었을 뿐이다. 이같은 양식도
既知의 金石像에서도 指摘할 수가 있다.

끝으로 後面에 있어서는 腰帶以下에서는 단순한 平行線을 그었을 뿐
이다. 그리고 圓形臺座의 上端에는 둥근 窠形 圓座가 있고 그 밑에
다시 가는 圓條 一段을 두었으며 그 밑에는 左右對稱의 衣紋이 주름을
잡고 垂下되었는데 이같은 양식 또한 百濟滑石像이나 新라의 경주 松花
山石像 등에서 볼 수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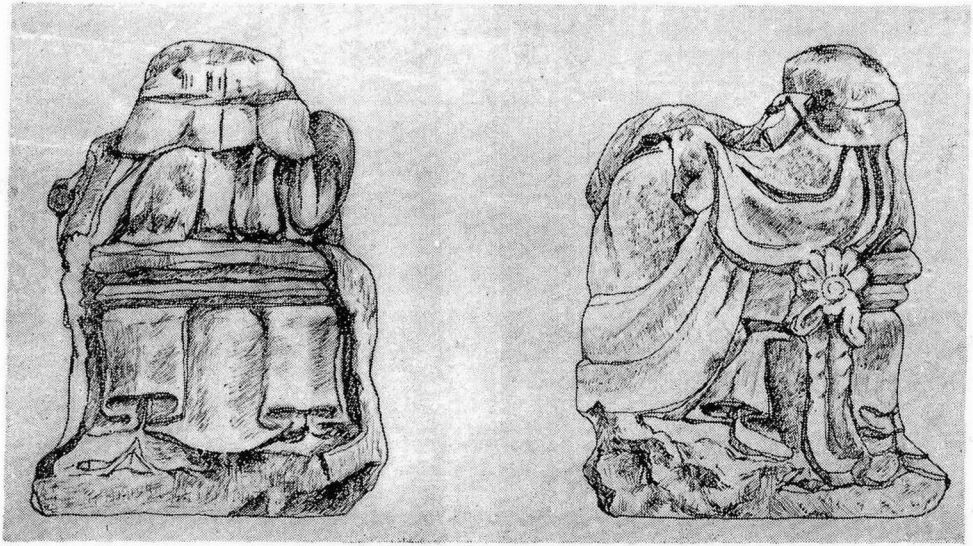
그리고 이상 四面을 돌면서 最下位에는 圓座가 있어 單瓣蓮花紋이
돌려 있는데 現在 남아 있는 것은 後面에서 볼 수 있는 二瓣뿐이
다. 그리고 이같은 蓮花紋圓臺의 양식이 平壤 平川里半跏像 또는 瑞山
百濟磨崖像이나 경주 松花山石像과 類似함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.
이 破像은 현재 赤褐色을 띠고 있으며 곳곳에 검은 着色을 보이고 있는
것은 出土後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無心한 사람들 손에서 전전한 까닭
으로 짐작된다.

三

이상에서 대략 이 石造小像이 현재 보이고 있는 樣式을 설명하였다.
비록 小像이며 腰部 이상의 身部를 모두 잃었으나 이같은 상태로나마
收拾된 것은 또한 多幸이라 아니할 수 없다. 刻法은 現狀으로서 流麗하
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우기 最下の 蓮花紋圓座를 거의 잃은 것은 애석
하기 짝이 없다. 그러나 남은 部分만으로서도 이 石像이 보이고 있는
各部의 양식은 三國時代 半跏像의 細部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그 樣式
이 기왕에 알려진 三國各別의 遺像과 매우 類似하다는 사실은 이미 위
의 여러 곳에서 지적한 바와도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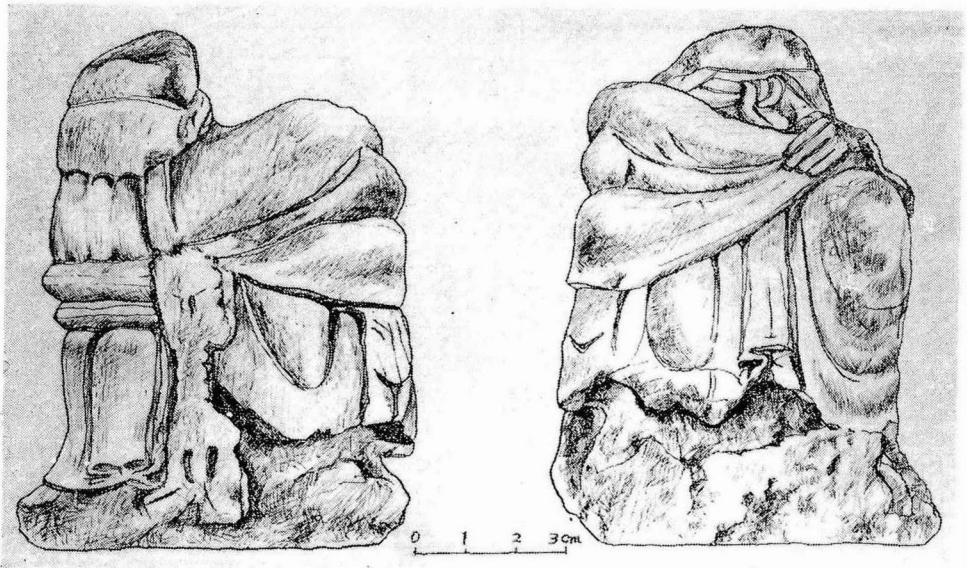
이 石像에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그 造形에 있어 前面뿐 아니라
側面에도 注力하고 있는 사실이다. 그리하여 石像 그 자체는 거의 正方
形을 이루었으며 다만 後面에 이르러 臺座에서 曲面을 이루고 있다. 이
같은 사실 또한 新라의 奉化像이나 또는 경주 松花山像과 같은 石像과
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.

그리하여 이 小石像은 위의 여러 점에서 기왕에 조사된 石像뿐 아니
라 金銅像 특히 平壤平川里出土 高句麗遺像과 한층 비교되어야 할 것이
다. 이같이 한국 三國時代의 半跏樣式像은 三國이 모두 그 樣式的 類似
點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金銅像을 그 模型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
는 石造像에 있어서 또한 그러하다. 이 石像의 出土地가 忠淸道 淸州地
方이라는 傳言과 石材가 碑岩寺碑像과 같은 蠟石系의 軟石임에서 무엇
보다 먼저 百濟의 石造遺例 특히 扶餘出土의 蠟石像과 比較되어야 할
것이다. 다만 燕岐 碑岩寺像은 그 銘記에 따라 新라 統一期에 들어서는
作品임에서 그 양식이 서로 다른 점은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. 그리하여
이 小石像의 年代는 그보다 앞서서 서기 六〇〇年頃에 두고자 한다. 그
리고 上記한 淸州地方의 出土라고 진하는 사실은 百濟故土인 瑞山이
나 燕岐 扶餘 등지에서 해방후의 出土新例와 더불어 특히 주목할 만 하
다. 百濟에서의 半跏思惟像의 조사는 모두 近年의 일인데 이번 新像이
淸州出土가 확실하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知見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
다. 古新羅에서의 彌勒信仰이 百濟國과 긴밀한 關係를 맺었던 사실은



後 面

左 側 面



右 側 面

正 面

圖 1. 傳清州出土 石造半跏思惟像 實測圖



圖 3. 傳 淸州出土 半跏思惟像(半左側에서)



圖 2. 傳 淸州出土 半跏思惟像(半右側에서)

三國遺事 卷三 彌勒仙花 未尸郎眞慈條에서도 짐작이 되거나와 그것은 동시에 彫刻史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彌勒의 化身인 仙花를 親見하기 위하여 신라 興輪寺의 승려가 公州 水源寺를 찾았다는 사실은菩薩形으로서의 彌勒像이 半跏思惟形式을 따랐을 것이라는 推定과 더불어三國시대에 있어서 이같은 樣式像의 연구를 위하여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. 百濟에서 日本에 전한 石彌勒^⑤이 半跏思惟形으로 추정된 사실은 동시대에 百濟와 古新羅 兩國 사이의 믿음과 그에 따르던 造形을 더듬는 마당에서 주목할 만하다. 瑞山과 扶餘와 燕岐 그리고 이번에 淸州出土라고 하는 이 小像은 그 같은 의미에서도 三國時代 半跏思惟像研究를 위하여 소홀하게 취급할 수가 없을 것이다.

註

- ① 拙稿·高句麗金銅佛像의 新例 二座(韓國佛像의 研究)所收 一九七二年 서울 三和出版社)
- ② 拙稿·瑞山 百濟磨崖三尊佛像(同上註一)
- ③ 拙稿·忠南 燕岐石像調査(上註一)
- ④ 拙稿·新羅半跏思惟石像(上註一)
- ⑤ 拙稿·斷石山神仙寺石窟磨崖像(上註一)
- ⑥ 拙稿·金銅半跏思惟小像의 新例(考古美術)一一八號 一九七三年 六月) 註四
- ⑦ 藤澤一夫·鹿深臣百濟將來彌勒石像說(「史跡と美術」第一七七號 一九四七年 三月)